



김여울 기자 광주 FC 시즈오카 캠프를 가다

K리그 클래식 승격 이끈 3인방 김호남·여름·임선영

“방패는 ‘우정’ 무기는 ‘경험’... 삼총사가 간다”

창단멤버로 형·동생으로...강등·승격의 순간 함께 나눠

“어렵게 찾은 기회 놓치지 않겠다... 오직 팀 위해 질주”

“호남이가 그 자리에 있어줘서 고맙다”는 여름과 “선영이 형이 너무 미안해 하며 눈물을 보였다. 형 뭉까지 하자, 기회가 올 거라고 믿었는데 여름이 도움을 줬다”는 김호남 그리고 “나가면서 동료들을 믿었다. 애들이 해줄 줄 알았다”는 임선영.

광주 FC 승격의 순간을 더욱 극적으로 만들었던 터줏대감 3인방이 또 다른 기적을 꿈꾸며 일본 시즈오카 캠프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광주의 김호남(26·FW)과 여름(26·MF)은 광주대 시절부터 8년을 함께 한 소문난 친구다. 임선영(27·FW)은 두 친구가 다투기라도 하는 날이면 편을 들어 주라고 가장 먼저 쫓아오는 좋아하는 형이자 광주를 대표하는 주장이다.

각별한 사이의 세 사람은 광주 FC의 역사이기도 하다. 임선영과 김호남은 2011년 창단멤버로 광주유니폼을 입었고, 관중석에서 고향 팀의 출발을 지켜봤던 여름은 1년 뒤 친구와 프로무대에서 재회했다. 신생팀 광주가 화려하게 비행했던 순간과 강등이라는 운명을 맞은 순간을 모두 지켜본 이들도. 승격하던 날 가장 많은 눈물을 흘린 이들이기도 하다.

세 사람에게 경기의 승강 플레이오프 2차전은 최악의 경기이자 최고의 경기였다. 광주는 3위 강원, 2위 안산 경찰청과의 단판 승부를 넘고 승강플레이오프 1차전 3-1 승리까지 장식하며 승격을 향한 마지막 관문만을 앞두고 있었다. 유리한 고지에서 시작된 경기였지만 디에고가 휘슬이 울린 지 얼마되지 않아 부상으로 실려나갔다. 승승인 카드로 전술 변화를 노렸지만 이번에는 임선영이 전반 막바지 허벅지 근육 파열로 주저앉았다.

임선영은 “마지막 순간에 뛰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

억울했고 미안했다. 다른 선수들도 속으로는 많이 힘들고 고민스러워 했을 것인데 유독 여름이가 어떻게 하나며 계속해서 짚짚매고 있어서 ‘정신차리라’고 큰 소리를 치고 나왔다. 그렇게 말은 하고 나왔지만 사실 라커룸에 가서 내가 울었다”고 속스럽게 웃었다.

임선영의 호통에 마음이 다 잡았던 여름이지만 기쁨의 눈물만 흘렸던 것은 아니다. 결정적인 골 찬스를 살리지 못했던 여름은 이후 팀이 선제골을 허용하면서 죄인이 됐다. 그러나 극적인 반전에 친구 김호남이 있었다. 경남 쪽으로 분위기가 기울어 가던 위기의 상황에서 여름이 올린 크로스가 김호남의 머리로 향했고, 잠시 후 승격에 췌기를 박는 동점골이 만들어졌다.

서로가 힘이 돼 광주로 선수로 살았고, 그 믿음은 광주의 승격이 됐다. 클래식 무대로 돌아온 3인방은 올 시즌 마지막에도 함께 웃기 위해 혹독하게 겨울을 보내고 있다. 챔피언 9위에서 승격을 이루었기에 ‘불가능은 없다’는 것이 이들의 이야기다.

올 시즌에도 주장을 맡게 된 임선영에게는 특히 군 입대를 앞두고 치르는 마지막 시즌이다. 그만큼 세 사람이 기다리는 봄은 더 특별하다.

임선영은 “개인적인 목표는 사치다. 창단 초반에는 나를 비롯한 88들이 팀의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89들이 중심이 돼서 선배 역할도 하고 팀을 이끌어줬으면 좋겠다. 오로지 팀을 위한 시즌을 보내겠다”고 말했다.

클래식 무대를 함께 질주하는 여름과 김호남의 유쾌한 상상도 끝났다. 어렵게 되찾은 것을 절대 놓지 않겠다는 이들은 곧은 각오로 2015년 광주의 또 다른 기적을 준비하고 있다.

/시즈오카=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일본 시즈오카에서 전지훈련을 하고 있는 광주 FC 김호남(왼쪽부터), 여름, 임선영이 숙소 로비에 있는 곰인형을 가지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장신에 투지와 승부욕...질베르토 ‘합격점’

연습경기 전후반 풀타임 소화 ‘MVP’감...파비오와 ‘브라질 콤피’ 기대

질베르토의 광주 FC 도전기가 순조롭다.

광주 FC는 올 시즌 파비오의 짝으로 질베르토를 영입하면서 새로운 ‘브라질 콤피’를 구성했다. 때론 눈으로 새 선수의 면면을 파악하던 남기일 감독이 얼마 전 질베르토에게 큰 점수를 줬다. 186cm 장신 선수의 투지 넘치는 플레이가 남 감독의 눈길을 끌었다.

남 감독은 “캠프에 와서 처음 치른 연습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그날 경기가 잘 풀리지 않았는데 상대 선수에게 적극적으로 붙으면서 싸우는 모습이 보였다. 이기려는 모습이 좋았다”고 평가를 했다.

전투적인 공격축구를 추구하는 남 감독에게는 몸을 사리지 않는 외국인 선수의 투지와 승부욕이 마음에 들었던 것이다. 물론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장점들이 속속 눈에 보이고 있다.

간단한 평가는 “공을 가지고 놀 줄 안다”이다.

빠른 스피드나 화려한 기술은 아니지만 공에 대한 집중력과 결정력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다. 광주에서 두 번째 시즌을 앞두고 있는 ‘선배’ 파비오의 눈에도 질베르토의 움직임은 만족스러웠다.

남 감독은 “한번은 파비오가 와서 질베르토 칭찬을 하더라. 공을 잘 잘 안다면서 결정력이 있는 편장은 선수인 것 같다고 했다”며 웃었다.

성공적인 K리그 데뷔를 위해 착실하게 캠프를 소화하고 질베르토는 시원하게 골 맛도 봤다.

광주는 12일 시즈오카 도키노스미까 센터 축구장에서 류츠게이저대학팀과 연습경기를 치렀다. 류츠게이저는 지난 시즌 대학 3관왕에 오르는 등 탄탄한 실력을 보유한 팀이다. 대학대표로 뛰고 있는 선수들을 보유한 저력 있는 팀과의 경기에서 질베르토는 전반 20분 페널티에어리어 왼쪽에서 골대 오른쪽을 겨냥하면서 득점에 성공했다. 경기가 1-0으로 끝나면서 질베르토는 결승골의 주인공이 됐다.

경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뛰는 모습도 이 경기의 MVP감이었다. 후반들어 선수들이 대거 교체됐지만 질베르토는 전후반 풀타임을 소화하며 남 감독의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통과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 FC의 새 외국인 선수 질베르토(가운데)가 12일 일본 시즈오카 도키노스미까 축구장에서 열린 류츠게이저대학과의 경기에서 전적으로 공을 쫓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종이 호랑이’ 우즈

“기량 찾아 오겠다” 활동중단 선언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40·미국)가 자신의 기량이 만족할 수준에 오르기 전에는 대회에 출전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우즈는 12일(한국시각)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최고 수준에서 경쟁할 수 있을 때 대회에 출전할 것”이라며 “준비됐다는 느낌이 들면 다시 돌아오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주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파머스 인슈어런스 오픈에서 허리 부상으로 기권했고 그 전주 대회였던 피닉스 오픈에서는 3라운드 진출에 실패했다.

세계랭킹이 62위까지 밀린 우즈는 이날 사실상 투어 생활을 당분간 중단하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우즈는 “경기에 면에서 보완할 점이 많다”고 시인하며 “나의 경기력이나 스코어를 보면 대회에 나가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스스로 비판했다.

그는 정확한 복귀 시점을 밝히지 않았으나 시즌 첫 메이저 대회인 마스터스 출전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올해 마스터스는 4월9일 개막 예정으로 약 2개월 정도 남았다.

/연합뉴스

KIA, 16일부터 멤버십 회원 모집

KIA 타이거즈가 2015시즌 멤버십 회원인 ‘KIA 챔피언스 클럽’을 모집한다.

이번 회원 모집은 ▲챔피언스K ▲챔피언스I ▲챔피언스A의 3종류로 나눠 이뤄지며 16일부터 구단 홈페이지(http://www.tigers.co.kr) 팝업창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챔피언스K(KIDS)와 챔피언스I(Intelligent)는 5~13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며 선착순 1000명을 모집한다. 가입비는 각각 8만원과 4만원이다.

챔피언스K 회원에게는 KIA 춘추 점퍼와 스냅백 모자(손목시계, 알루미늄 배트 중 택일), 캐치볼(챔피언스 필드 로고볼 중 택일), 회원카드가 기념품으로 제공된다. 챔피언스I 회원에게는 스냅백 모자와 캐치볼(로고볼 중 택일), 회원카드가 주어진다.

성인(14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챔피언스A(A-mazing)는 선착순 2000명으로 가입비는 8만원이다. 챔피언스A 회원에게는 춘추 점퍼와 모자와 카드 홀더(카드 지갑 중 택일) 및 회원카드가 기념품으로 제공된다.

또 KIA 챔피언스클럽 회원들은 챔피언스 필드 입장권 예매시 2000원 할인(본인 및 동반 1인), 전용 입장 라인 이용, 경기결과 SMS 발송, 멤버십 데이 이벤트 참여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호남선 KTX 개통에 따라 수도권 및 타지역 회원들을 위한 KTX 주말 왕복 승차권 할인(할인을 추후 공지) 및 KT금융센터가 55% 할인(승정역에서 차량 인계) 혜택도 추가됐다. (문의 마케팅팀 정현진 사원 070-7686-8073) /김여울기자 wool@